하늘폭포수 은혜와 인공폭포수 은혜

(신9:1~29)

4.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5.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6.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7.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 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8. 호렙 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늘폭포수 은혜와 인공폭포수 은혜>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늘폭포수 은혜와 인공폭포수 은혜'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에 형님 목사님으로부터 나이아가라 폭포 사진을 하나 구해서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사진을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고 물었더니 당신의 집무실에 걸어놓고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나이아가라 폭포수 같은 은혜와 나이아가라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임하기를 기도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으로 보면 기도의 내용이 더 구체적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나이아가라 폭포의 영상이 주는 어떤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말만 들어도 마음이 다 시원해집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수 같은 은혜와 나이아가라 폭포수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 삶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늘폭포수 같은 은혜와 인공폭포수 같은 은혜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한 번 알아봅니다.
'폭포'는 영어로 'waterfall'인데 '물이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낙차가 있어야 폭포인데 인공

폭포는 물이 떨어지는 낙차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공적으로 낙차를 만들고 위쪽에 물을 끌어들이면 인공폭포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민은 하늘폭포수 같은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고, 선민이 아닌 사람은 인공폭포수를 만들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짜 선민들이 끼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인공폭포수 은혜가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은혜'는 본래 하늘폭포수 은혜 밖에는 없는데 가짜 선민들이 끼어서 인공폭포수 은혜를 만들어 냅니다. 오늘 본문은 인공폭포수 은혜에 대한 경고입니다. 선민이기 때문에 인공폭포수적인 삶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 뿐만 아니라 선민의 그룹에 끼어서 '은혜'라는 말을 동원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상기하면 좋은데 우리 사람의 마음은 연필, 만년필, 자동차와 같이 고정되어서 마무리 되어 있는 독립적 개체가 아닙니다. 마음을 이루고 있는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샘솟고 흐르면서 유동적이고 운동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처럼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음은 물과 같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더 낮은 곳에 있는 대상을 향해 내 마음이 흘러갑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을 향해서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흐름이 만들어지면 내려 보내는 수밖에 없는데, 내려 보내려면 내가 내 마음을 내려 보내고 있는 대상보다 항상 높이 있어야 내려 갈 수 있습니다.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를 수는 없지요.
이런 상황에서 '하늘폭포수 은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으로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것인데 '은혜'라고 하니 우리 삶에 하늘폭포가 열려서 하늘폭포수처럼 은혜가 쏟아지는 상황이 에덴이었습니다. 에덴에 선악과가 있었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는데, 이 네 개의 강은 사람의 생존 조건에 필요한 물을 말하기도 하지만, 상징적으로 선악과와 같이 짝을 이루어서 하늘폭포수가 내려와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폭포수가 내려오는 장소, 하늘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장소가 에덴이었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서 사람의 판단이 이 세상일에 대해서 중단되고 사람의 마음이 세상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마음이 선악을 판단하지 않으므로 먹고 사는 일, 결혼하는 일, 취직하는 일 등의 세상일에 마음을 내려 보내지 않을뿐더러 내려 보낼 수 있는 아래에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사람이 이 세상 어떤 일보다도 낮은 곳에 있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한 바닷물이 햇빛에 의해 증발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

처럼, 가장 낮은 곳에 임해서 어떤 일에도 마음을 흘려보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 세상 모든 일들(밥 먹고 사는 것, 결혼, 취직, 공부, 직장생활 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늘폭포수가 내려오듯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직장을 가도, 결혼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자식을 키울 때에도 내 마음을 찾을 수가 없이 하늘로 다 올라가면, 내 마음이 없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늘폭포수가 열려서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어서 에덴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에덴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포인트는 세상 모든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래에 있는 일이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와 진행되어야 될 일들입니다. 단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에 흘러 들어와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일을 붙잡아서는 안 되고 우리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먹고 사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늘폭포수 같은 은혜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락하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폭포수 같이 내려와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었는데, 사탄이 끼어들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되자 이 세상 모든 일이 내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조차도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저주의 내용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혼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귀에게 속은 타락의 결과이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마귀에게 속아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내가 내 건강을 챙기고, 내 자식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은 본래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세상 일 중에서는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세상일은 하나님의 자격으로만 마음을 흘려보내고 마음으로만 만질 수 있는 일들인데, 사탄이 끼어들어서 그 일들을 다 내 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이 세상일을 향해서 마음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인공폭포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조차도 마음을 흘려보낼 수 없을 만큼 낮은 곳에 있는 자들로서 그 대신에 하나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하찮아 보이고 사소한 일이고 초보적인 세상일 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서 진행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세상일을 내 일로 맡아서 낙차가 생기고 인공폭포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일을 바라볼 때에 내가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커지는 것은 점점 더 '내가 높아져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아래보이는 것들은 작아 보입니다.
옛날에 돈이 없을 때에는 500만 원짜리 차가 너무도 소중했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다보니 준 재벌이 되어서 6억짜리 차를 타게 되었는데도 무언가 2% 부족합

니다. 그 많이 번 돈을 타고 앉아서 높아지고 보니 6억짜리 차도 작아 보입니다. 그 옛날에는 만 원짜리 식사도 일 년에 한 번 할 정도의 큰 식사였는데, 이제는 10만 원짜리 식사도 그 옛날 라면 사먹던 것보다 작게 보입니다. 마음이 높아진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돈이 있어서 돈을 타고 높아졌든지 허풍이 세서 높아졌든지 마음이 높아지면, 이 세상일들이 다 시시해보이고 점점 더 크다고 생각되는 일들에 대해 마음을 흘려보내다가, 결국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끝나는 생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기혼 샘과 실로암 샘 같이 고도의 차이가 2m 밖에 나지 않는 곳에서 보면, 노숙자에게는 먹고 사는 일이 낙차가 2m로 버겁고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1억 연봉의 사람이 내려다 볼 때에는 낙차가 55m 되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보는 것처럼 작은 일로 보입니다. 빅토리아 폭포는 낙차가 108m로 더 작아 보입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토록 낮아지기를 바라셨던 선민에게는 먹고 사는 일은 어떠한 것입니까? 결코 조금의 마음도 흘려보낼 수가 없을 만큼 나보다 높이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광야에서 깨달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고 사는 일에 마음을 조금도 흘려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때에도 결코 그 일이 너희가 높이 있는 상태에서 마음을 흘려보내서 너희 능력으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일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낮은 곳에 있어서 마음을 흘려보낼 수가 없을 때에- '내 마음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신경 쓰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애를 쓰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폭포수처럼 임하면서 이 세상일이 진행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세상일이 진행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오셔서 진행되기 때문에, 내 소원대로 진행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폭포수처럼 임해서 내 삶의 일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그 일들 중의 단 하나도 내 소원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 선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며 '인공폭포수 같은 은혜'라는 말을 만들어내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나안에서 전쟁을 치를 때에 반드시 이길 것인데 '우리의 공의로움 때문에 이겼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의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이만한 승리를 갖기에 합당할 정도의 높이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와서 이룬 것인데도 그 결과물에 올라타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 높아진 것에 대한 자기의식이 어떻게 발동이 되느냐면 내가 공의롭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 사람들은 하나님보시기에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로 압니다.

여기에서 선민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경고해주기 위해서 모세가 사십년 전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금송아지숭배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그 승리가 자신들의 공의로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십년 전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금송아지숭배 사건은 인공폭포수 같은 은혜를 갈망하는 선민의 반란 사건인데 금송아지숭배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2개월이 걸렸는데 그 2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들이 노예가 되어서 섬기던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칼이나 창 한 번 쓰지 않았는데 초토화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것을 보고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을 봅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림에서 열두 샘과 칠십 그루 종려나무의 하나님의 배려를 경험합니다. 신 광야에서 만나를 먹기 시작하고, 고기가 없다고 하니 메추라기를 주셔서 광야에서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르비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아말렉과의 싸움을 경험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를 두 달 동안 경험하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사십일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시내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십계명 돌판을 받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론부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출애굽 기적의 대 능력인 홍해를 벽처럼 세우고 그 가운데를 걷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신 하나님의 능력, 르비딤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신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고기를 먹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금송아지에게 주입해버립니다. 이렇게 두 달 동안 자신들이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금송아지 안으로 옮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한 그 능력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견도 없고 생각도 없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두 달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금송아지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자기들이 올라타는데 높아진 것이고, 이제는 두 달 동안 경험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이 부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인공폭포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올라타고 내가 원하는 소원과 계획과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청빙해서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목이 곧음의 결과입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끊임없이 인공폭포를 만들려는 기질로, 사탄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걸었던 저주를 답습하는 것인데 자꾸 이 세상일에 대해서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적 능력에 내가 올라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금송아지로 만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서 올라타는데 올라타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반드시 능력만 갖고 있는 금

송아지로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올라타고 보니 이 세상에서 일이 벌어져야 될 지표와 낙차가 생기는데 이것이 인공폭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올라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타고 내가 향하는 목표를 향하여 몰아가듯이 그 능력을 몰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것을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내 마음에서 소원하던 것들이 어쩌다 이루어지면 그것을 은혜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시는 저주의 연장선상이지,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은 결코 은혜일 수 없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는 것을 보면 전부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정해놓은 가치가 내게 이루어진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진짜 하늘폭포가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의 흐름이 우리의 삶에 폭포수처럼 임하게 되면, 그 은혜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좋은 쪽(오른쪽)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좋은 쪽(왼쪽)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왼쪽이고, 몸에 못 고칠 질병이 있어도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왼쪽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 순조롭지 않고 형통하지 않은 모든 일들도 은혜로 볼 수 있어야 진짜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합니다. 왼쪽의 일 때문에 은혜로 느끼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히려 순조롭게 될 때를(오른쪽)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순조로울 때에 반드시 그 일을 올라타고 높아져서, 그 순조롭게 된 일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와서 했다고 입으로는 고백해도, 마음으로는 높아져서 거들먹거리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와서 이루실 때에 오른쪽으로 일어나든 왼쪽으로 일어나든 어떻게 되든 우리 마음이 그것에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세상일로 흘러가서 잘됐다고 기뻐하고 못됐다고 슬퍼해서는 안 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없으면 내 마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드시 높아집니다.
북한의 꽃제비나 노숙자의 마음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아직도 십자가보다 높은 자리인 것입니다. 노숙자들이 먹고 사는 일을 자기의 일로 생각하는 한 십자가보다 높은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놓치면 순식간에 내가 높아지고 이 세상일과 나 사이에 낙차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경에서 소개된 모든 하나님의 능력에 올라타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려고 할 때에 열 가지 기도하다가 한 가지 이루어지면 그것을 은혜라고 좋아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꾸고 '이것이 너희를 출애굽 시킨 여호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마귀의 저주에 걸려있기 때문이고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우리는 하늘폭포수가 쏟아지는 아래에서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인 십자가에서

내 마음이 죽어서 기본적인 먹고 사는 일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할 때에 내 마음은 하늘로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로 임하게 되면 주님께서 끌고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것 까지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딱 마주칠 때, 마치 밖에서 보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하늘폭포가 열리면서 우리 안으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지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타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보이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종교적 특별한 인물에게만 주어질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을 믿기만 하면 어느 현장 어느 순간이든지 내 마음이 하늘로 치솟아 하나님의 마음에 부딪히자마자 하늘폭포수가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확 쏟아져 내려오면서 내 몸이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데, 그 때에 오른쪽으로 나타나서 형통처럼 보이는 일이 있어도 끌어당기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왼쪽으로 나타나서 형통치 않아 보이는 일이 있더라도 밀쳐내지 않기 위해 십자가를 붙잡으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든지 내 마음을 계속해서 죽게 해서 십자가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하늘폭포수의 은혜는 계속해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 네 강이 흘렀던 것처럼 내 삶에서 인간관계의 방면이든, 물질관계의 방면이든, 사회적인 방면이든 어떤 방면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면서 생명을 만들어 내는 역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인공폭포가 되어서 살고 있는 가운데, 선민 그룹 안에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며 인공폭포수 같은 은혜를 창출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우리가 이들과 구별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를 잊지 않음으로 오직 하늘폭포수 은혜 속에서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